

의안번호	268
------	-----

발 의 년 월 일

2024. 3. 4.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장순관 의원 대표발의)

발 의 자
장순관 의원 외 10인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장순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68
------	-----

발의연월일 2024. 3. 4.

발 의 자 장순관, 이상우, 홍원표, 임종용,
박중수,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심완예, 이길원, 이정순 의원
(11인)

1. 주 문

- 농업·농촌현장은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인하여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음(통계청,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농촌 고령화는 49.8%로 1년새 3% 증가, 반면 40세 미만 경영주는 0.7%불과)
- 청년농업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은 농업·농촌의 생존을 위하여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임
- 농촌 체험 시설은 앞으로 청년농업인의 부가적 또는 주요 소득 창출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농촌 체험 시설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농촌 체험시설은 향후 농촌관광분야의 주요 소득분야로 청년 농업인의 부가적 또는 주요 소득 창출수단으로 기대
- 청년 농업인이 소득 창출을 위하여 농촌 체험시설을 운영을 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지원 필요

3. 참고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안 보낼 곳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농업·농촌은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인하여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그동안 수없이 이야기 되어왔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촌 고령화는 49.8%로 농촌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의 3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령화는 1년 사이 3%나 증가 된것입니다. 반면 40세 미만 경영주는 0.7%에 불과하여 암울한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은 청년농업인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은 농업을 단순한 식량 공급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교육, 환경, 문화 등의 공익적 가치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농작물 재배와 출하에 그치지 않고 농촌체험시설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농촌 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2022 농촌관광 실태조사’에서는 농촌체험 분야가 방문객 수 및 매출액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전망치를 보여주며 농촌관광의 주요 소득 분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체험시설은 현재 관련 규제로 인해 농지전용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설하우스를 통한 작물재배와 농촌체험시설 운영을 하려는 청년농업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을 단순한 생산에서 벗어나 이를 활용한 다양한 공익적 가치 창출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는 청년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 농업인들은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산군의회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주축인 청년 농업인이 그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1항의 부속시설 범위에 체험시설 규정 신설을 검토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스마트팜 시설 재배 농가의 농촌 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2024. 3.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